

# 칼빈의 구제 이해와 실천적 빈민 구호 방안

박 영 실

충신대학교, 역사신학

## 1 글을 시작하면서

13세기의 카톨릭 교회의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 1225-74)에게 『신학대전』(*Summa Theologica*)이 있었다면 16세기 제네바의 개혁가 요할 칼빈(John Calvin: 1509-64)에게는 『기독교 강요』(*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가 있었다. 실로 칼빈은 기독교 교리를 집대성한 위대한 이론가인 동시에 실천가였다. 그는 이론가로만 머물지 않고 늘 세상과 사회에서의 실천과 소통을 추구한 개혁가였음을 잊지말아야 한다. “칼빈 자신은 실제로 자신이 이해하여 집대성한 신학을 공허한 관념의 세계에 붙들어 매 놓으려 하지 않았다. 그는 그것을 실천의 장인 교회에 적용하려고 했고, 그것으로부터 가시적인 실질적 효과들을 친히 보고 싶어 했다. 그는

\* 논문투고일: 2012. 4. 30.

논문수정일: 2012. 6. 5.

게재확정일: 2012. 7. 30.

평생을 신학적 이론에 자신을 묶어두지 않고 그 이론을 실천에 옮기려고 심혈을 기울였던”<sup>1</sup> 신학자였던 것이다.

하지만 칼빈의 이론, 즉 신학에 관한 연구는 충분하여도 그의 실천과 소통의 결과들인 사회나 사회 복지 사상들은 상대적으로 충분한 조명을 받지 못해 왔었다는 점에서 이 분야에 보다 많은 관심이 주어져야한다고 생각한다. 한편 “복지”를 핵심 키워드로 잡아가고 있는 한국 사회와 복지목회를 지향하는 현 한국 교회의 움직임에 있어서 “복지”에 대한 개혁신학적인 입장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고(本考)는 먼저 칼빈의 저작들을 중심으로 칼빈의 구제 운영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그 견해에 기초해서 칼빈의 현장인 16세기 제네바(Geneva)에서 그의 빈민 구호 방안 및 운영은 어떠한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 2 칼빈 저작에서의 구제

### 2.1 『기독교 강요』(1536)

『기독교 강요』(*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는 칼빈의 대작(*opus magnum*)이다. 그의 나이 27세(1536년)에 초판을 펴낸 이래 개작을 거듭하여 1559년에 라틴어 최종판, 그리고 1560년 최종 불어판을 출판하였다.<sup>2</sup> 『기독교 강요』의 출판은 칼빈 개인에게 제네바의 사역자가 되는 계기를 제공하였고, 범교회적으로는 종교개혁의 신학적 완성을 촉진하였다. 특히

---

1 황성철, “칼빈 당시 제네바 교회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신학지남』 통권266호(2001년 봄호): 142.

2 『기독교 강요』은 1536년에 Basel에서 초판이 나온 이래 1539년에 라틴어판, 1541년에 불어판, 1543년에 라틴어판, 1545년에 불어판, 1550년에 라틴어판, 1551년에 불어판, 1559년에 라틴어판, 1560년에 불어판이 출판되었다.

1559년판은 『기독교 강요』의 결정판으로 그 동안의 칼빈의 사상의 많은 연구는 『기독교 강요』1559년판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특징은 여러 차례의 개정판에도 불구하고 초판으로부터 최종판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강조점을 유지해 왔다는 것이다. 한편 칼빈의 1536년의 『기독교 강요』 초판은 매우 간결하여 칼빈 사상의 핵심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잇점을 가지고 있다. 이 초판이야말로 “칼빈 신학의 문을 여는 열쇠”라 할 수 있다.<sup>3</sup> 하지만 초판을 최종판과 비교해 볼 때, 그것에 관한 연구가 너무 미진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536년의 『기독교 강요』 초판을 중심으로 칼빈의 구제 사상을 연구해 보고자 한다.

칼빈이 프랑스 국왕인 프란시스(Francis) 1세에게 보낸 헌사에서 『기독교 강요』의 목적이 “종교에 열심을 내는 자들이 참된 경건(ad veram pietatem)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어떤 근본적인 사항들을 제공”<sup>4</sup>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성경에 의해서 전수된 참된 종교가 사람들 가운데 확고하게 서야지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지하게 되거나, 아니면 그것을 무시하거나 비난하도록 쉽게 허용해서는”<sup>5</sup> 안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따라서 “맹신(implicita fide)”이 아닌 참된 경건을 추구하는 자들을 계도하기 위해서 『기독교 강요』를 저술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이 초판의 원제목이 『기독교 강요, 전체 경건 개요와 구원 개요 지식에 필요한 것들, 경건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가장 적당한 최근 편집 작품』<sup>6</sup> 이었다.

3 John Calvin, *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1536), 문병호 역, 『순수한 경건의 교리: 라틴 어직역 기독교강요』(서울: 생명의말씀사, 2009) 서론 IX. 이하 *Institutio*(1536), 장, 절으로 표기.

4 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ed. John T. McNeill. tr. Ford Lewis Battles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0), 9. prefatory address to King Francis. 이하 *Institutes*(1559), 권, 장, 절로 표기.

5 Veram religionem, quae scripturis tradita est, quaeque inter omnes constare debuerat, facile et sibi et aliis ignorare, negligere despiciere permittunt,...

칼빈은 참된 경건의 근본적인 가르침에 있어 십계명과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해석을 주 골격으로 잡았다. 그는 율법의 근본 목적이 “삶의 완전함(vitae perfectionem)”<sup>7</sup> 이라고 하였다. 그 주제가 1539년 판부터는 두 개의 장으로 나누어 확대 설명되고 있다. 칼빈은 십계명이 두 개의 돌판으로 주어졌듯이, 그것은 두 주제, 즉,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될 수 있다고 하였다.<sup>8</sup> 둘째 돌판의 주제를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을 길러 자신에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 같이 다른 사람에게 행하는”<sup>9</sup> 것으로 칼빈은 언급하면서, 이웃 사랑을 위해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더욱 분명하게 해석할 것을 강조하였다. 제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non occides)”를 친구들과 원수들을

---

6 *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 totam fere pietatis summam et quicquid est in doctrina salutis cognitu necessarium complectens, omnibus pietatis studiosis lectu dignissimum opus ac recens editum*

7 Calvin, *Institutio*(1536). 1. 4. Quo scilicet nobis indicat, eam quae in lege docetur, vitae perfectionem vere esse iustitiam, sic apud se haberi dignamque tali mercede fore, si qua reperiri inter homines posset. 칼빈은 그의 『기독교강요』 최종판(1559) 2권 7장에서는 이 율법이 “삶의 완전함”을 목표로 하는 “완전한 의의 규범”(2.8.5)이라는 것을 율법의 제1,2,3 기능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한다: 율법의 제1기능은 율법의 정죄의 기능이라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냄과 동시에 인간의 불의를 정죄하는 것이다(6-9절); 율법의 제2기능은 악인과 불신자들을 징벌에 대한 두려움을 통하여 억제시키는 것이다(10-11절); 율법의 제3기능은 율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랄 수 있는 것으로 신자들을 가르치고 권고한다는 것이다(12-13절) 칼빈은 다윗의 시편 19편 7-8절이야말로 바로 이런 율법의 제3기능을 정확히 보여주는 것으로 간주한다: “여호와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와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와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와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8 Calvin, *Institutio*(1536). 1. 7. Qua ratione Dominus noster(ut Evangelistae referunt) legem totam summam in duo capita collegit: ut Deum ex toto corde, ex tota anima, ex totis viribus diligamus, ut proximum amemus sicut nosmetipsos. 이런 사실은 『기독교강요』 최종판(1559) 2권 8장 11절에서 더욱 분명하게 천명된다. 율법의 첫 돌판의 기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고, 두번째 돌판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인간 사회에서는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를 가르친다는 것이다. 이런 율법의 두 강령을 주께서 친히 정리하셨다는 것이다: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눅10:27)

9 Calvin, *Institutio*(1536). 1. 24. Deinde, ut propter Deum, caritatem cum aliis colamus, ita cum omnibus agendo ut nobiscum agi optemus.

구분하지 않고 “위험에 빠져있다면 누구든 도울 것이며, 가능하다면 모든 이들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할 것”<sup>10</sup> 이라고 칼빈은 해석한다. 또한 제 8계명인 “도둑질하지 말라(non furtum facies)”에 대한 해석을 통해 친구들은 물론이고 적들에게도 “만일 그들이 어려운 일로 놀려 있다면 그들의 필요함에 준해서 함께 나누고 우리의 부요함으로 그들의 가난을 채워야 할 것을”<sup>11</sup> 권고한다. 그는 바울이 모든 선행을 “하나님의 영의 열매(fructus spiritus Dei)”라고 부른 것을 상기시키면서 선행을 하나님께 돌릴 것을 촉구한다.<sup>12</sup>

흥미롭게도 칼빈은 성찬도 이런 구제의 맥락에서 보고 있다. 그는 성찬을 “가난한 자에게 후히 주시는 것(pauperibus largitionem)”<sup>13</sup> 으로 해석하면서, 그 성찬을 주신 주님을 “가난한 자들에게 자상하게 베푸시는 분”<sup>14</sup> 이라고 한다. 성례의 가치가 첫째는 믿음(fides)에, 둘째는 사랑(caritas) 있다는 사실을 명기하면서<sup>15</sup> 이 성례가 “완전한 이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약하고 무능한 자들을 위하여, 믿음과 사랑의 미비함을 지적하고, 자극하고, 도전하고, 불러 일으키기 위해서 제정”<sup>16</sup> 되었다고 선언한다. 따라서 이 성례는 관례적으로 자주 시행되었다면서 그 목적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10 Calvin, *Institutio*(1536). 1. 18. si quo in discrimine sunt, auxiliarem manum afferamus, utrisque benefici esse, quantum possumus, contendamus. 이런 사실은 특히 『기독교강요』최종판(1559) 2권 8장 39-40절에서 분명하게 진술되어 있다.

11 Calvin, *Institutio*(1536). 1. 20. si rerum difficultate premuntur, eorum necessitatibus communicemus, ac inopiam nostra copia sublevemus. 『기독교강요』최종판(1559) 2권 8장 45-46절에서는 더 자세히 다루어지고 있다.

12 Calvin, *Institutio*(1536). 1. 36.

13 Calvin, *Institutio*(1536). 1. 38.

14 Calvin, *Institutio*(1536). 1. 38. cogitabimus, nos pauperes venire ad benignum largitorem, . . .

15 Calvin, *Institutio*(1536). 1. 38.

16 Calvin, *Institutio*(1536). 1. 38. quod non perfectis institutum est, sed infirmis ac debilibus, ad vellicandum, excitandum, stimulandum, exercendum fidei et caritatis defectum.

(bonitatem)”을 선포하고 필요할 때 “형제를 도울 수 있는 것을 간과하지 않기 위함”<sup>17</sup> 이라고 한다.

또한 칼빈은 이 구제를 초대교회의 필수적인 관행이었다고 주장한다. 사도행전에 보면, 신자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고 기록되었다. 초대 교회의 모든 모임의 필수적인 요소는 말씀, 기도, 성찬거행, 그리고 구제였다는 것이다. 또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보여 주듯이, 칼빈은 구제 시행이 고린도교회에서도 확립된 관행이었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한다.<sup>18</sup>

이런 교회의 본질적인 관행과 관련하여 칼빈은 그의 『기독교강요』 최종판(1559)에서 교회의 직분과 교회 재산의 운영을 실태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한다.<sup>19</sup> 구제 시행과 관련되어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섬기는 직분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집사직이었던 것이다. 그런 성격의 집사의 임명 기원과 역할은 누가 복음에 나오지만 중세 교회와 같이 집사를 부제로 간주하는 것은 근거를 찾아볼 수 없다고 칼빈은 주장하였다.<sup>20</sup> 또한 교회 재산의 필수적인 용도중 하나가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 시행이었다는 것이다. 교회는 교회 수입을 네 부분으로 나누고 그 하나를 가난한 자들을 위한 몫으로 간주했다. 교회의 재물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것임”<sup>21</sup> 을 천명했던 것이다.

17 Calvin, *Institutio*(1536). 1. 40. ne quid praetermittat, quo eum iuvare possit ….

18 Calvin, *Institutio*(1536). 1. 40. “Talem fuisse ecclesiae apostolicae usum Lucas in Actis commemorat(Act. 2), cum fideles ait perseverantes fuisse in doctrina apostolorum, communicatione, fractione panis et prationibus, Sic agendum omnino erat, ut nullus ecclesiae conventus fieret sine verbo, orationibus, participatione coenae, et eleemosynis. Hunc et apud Corinthios fuisse institutum ordinem, satis ex Paulo conicere licet.”

19 Calvin, *Institutes*(1559). 4. 4. 5-9.

20 Calvin, *Institutio*(1536). 1. 65.

21 Calvin, *Institutes*(1559). 4. 4. 8.

## 2.2 칼빈 주석

### 2.2.1 구약

칼빈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에 나타난 여러 계명들을 묶어서 십계명의 제 8계명의 범주에서 주해하였다.<sup>22</sup> 이웃을 기만하거나 폭력으로 착취하는 것은, 이웃 사랑의 기준으로 볼 때 사실상 도둑질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sup>23</sup> 그는 레위기 19장 13절을 주해하면서 날퐁팔이 일꾼들을 포함한, 가난하고 힘없는 사회적인 약자들을 억압하며 착취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온유하고 절제해서 이웃을 부당하게 압제하지 않을 것을 명령하신다. ... 모세는 ... 여기에서 우리가 가질 권한이 없는 것을 이웃에게서 착취하는 불법을 금하고 있다. ... 그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든 자기 형제를 압제하고 그들의 재산을 차지하는 것을 금하고, 동시에 그것을 힘을 써서 부당하게 탈취하는 것을 금한다. 끝으로 부당한 압제의 한 사례로서, 고용되었지만 임금을 사취당한 날퐁팔이 품군의 경우를 든다. ... 이것은 임금 지불을 다음 날로 미루면서 빈손으로 돌려 보내는 경우이다. ... 부자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에게 일은 시켜 놓고, 그 임금 지불을 지체한다는 것은 그에게 그날 양식을 탈취하는 것이요, 빼앗는 것이요, 결국 그의 목숨을 빼앗는 처사와 진배없다. 요약하면, 서로의 인간성이 고양되어 누구도 압제당하지 않아야 하고, 임금 채불로 인한 손해를 당해서는 안 된다.<sup>24</sup>

22 John Calvin, *Calvin's Commentaries*, Vol. III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96), 110-179.

23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레 19:11; 13)

24 Calvin, *Calvin's Commentaries*, Vol. III, 112-113.

특히 “곤궁하고 가난한” 품군의 문제가 다시 언급된 신명기 24장 14-15절 주해에서, 칼빈은 임금 체불(滯佛)은 학대라고 주장한다. 가난한 품군을 “학대하지 말라”는 것과 “그 품삯을 당일에 주라”는 것은 한 문맥이라는 것이다. 이 모든 명령은 가난한 자의 생존을 위한 규정이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에게 거만하게 굴거나 인색해서는 안되는 것이다.<sup>25</sup>

그렇지만 칼빈은 레위기 19장 9-10절을 주해하면서 “바울은 부자들이 가난한 자를 관대하게 구제하는 것으로 인해 어려움에 봉착하지 않도록 구제의 양을 정하고 있다(고후 8:13)”고 덧붙였다. “부자들이 포도송이나 곡식의 이삭을 남겨 두지 않을 정도로 인색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곡식과 포도를 거두고 그 부를 누리는 것을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허용하신다”라고 밝히고 있다.<sup>26</sup> 이는 구제에 대한 강조가 부의 소유를 부정하는 결과를 야기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이다. 구제의 대상으로 “하나님께서서는 고아, 과부 및 나그네들을 주목하신 듯 하지만, 사실은 … 가난하고 궁핍한 모두를 지칭”한다.<sup>27</sup>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들의 몫 중 일부를 밖으로 흘러가게 하라는 것이다.<sup>28</sup>

가난한 자 구제가 더욱 강조된 본문은 신명기 15장이다. 하지만 구제의 대상이 되는 가난한 자는 “보통 정도의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라 극심한 가난에 빠진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너희 가운데 거지가 생기는 것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땅에서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부자는 “반드시” 도와야 하는 것이다. 부자는 가난한 자에게 “완악하게 말고,” “손을 움켜 쥐지 말고,” 오히려 “기꺼이”,

25 Calvin, *Calvin's Commentaries*, Vol. III, 113-114.

26 Calvin, *Calvin's Commentaries*, Vol. III, 152.

27 박건택 편역, 『칼뱅작품선집:니고데모파.재세레파.자유파논박』제5권 (서울: 총신대학교출판부, 1998), 319.

28 Calvin, *Calvin's Commentaries*, Vol. III, 152.



“자발적”으로, 그리고 “넉넉히” 구제 하여야 한다고 풀이하고 있다.<sup>29</sup>

### 2.2.2 신약

구제가 초대 교회의 확립된 관행이었다는 것은 『기독교 강요』뿐만 아니라 그의 성경 주석에서도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다. 사도행전 2장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sup>30</sup> 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본문에서 칼빈은 “떡을 떼며”를 성찬(Lord’s Supper)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해하며, “교제”한다는 것을 형제간의 사랑의 교제나 구제물(alms)을 나누는 것으로 여겨 구제로 간주하였다. 이누가의 본문이야말로 확립된 초대교회의 모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칼빈은 선언하고 있다: “왜냐하면 누가 공중 앞에서 가시적인 교회의 모습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으로 그는 참되고 순수한 교회의 모습을 식별할 수 있는 네 가지 표징을 정의하고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를 추구하는가? 그에 관한 그림이 여기 생생하게 그려있다.”<sup>31</sup>

또한 칼빈은 2장 44절의 “함께 있어(ἐπι τὸ αὐτο)”를 장소의 맥락에서 해석하여 같은 장소에 계속하여 머물렀다가 보다는 그들이 다 같이 일치된 생각을 가졌다는 의미로 받아들인다. 칼빈은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의 일치를 하고 그 다음엔 적절한 관대함을 갖는 것으로 발전한다. 그러므로 그는 그들 스스로 진정한 형제애로 연합되

29 Calvin, *Calvin’s Commentaries*, Vol. III, 154-158.

30 ἦσαν δὲ προσκαρτεροῦντες τῇ διδασκίᾳ τῶν ἀποστόλων καὶ τῇ κοινωνίᾳ, τῇ κλάσει τοῦ ἄρτου καὶ ταῖς προσευχαίς.

31 John Calvin, *Calvin’s New Testament Commentaries: The Acts of the Apostles*, Vol. I, trans. W. J. G. McDonald (Grand Rapids: Eerdmans, 1989), 85.

어 있었으니, 이에 부자들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이들을 도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놀라운 사랑의 예이다. 누가 는 이것을 기록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가난한 형제들을 구제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고자 함이다.<sup>32</sup>

또한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sup>33</sup> 고 기록되어 있다. 칼빈에 따르면 이 본문의 해석에는 순서가 중요하다. 먼저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일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랑을 적용하여 사랑의 외적 행위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다.<sup>34</sup> 형제가 어렵다면 그 형제에 대한 순수한 사랑은 곧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행위 곧 구제로 표출되어야 할 것이다.

칼빈의 구제의 견해는 그의 로마서 주석에서도 발견된다. 로마서는 칼빈이 가장 처음으로 주석을 한 성경이다. 그 이유는 로마서를 이해한다면 다른 성경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로마서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새로운 삶에 관해서 언급하는 곳이 로마서 12장이다. 특히 이곳에서는 구제와 관련된 설명이 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가 원활하게 시행되지 못하는 것을 불평하였고 이로 인하여 집사직이 신설되게 되었다. 칼빈은 로마서 12장 8절에 나타난 “위로하는 자”와 “구제하는 자”를 두 가지 형태의 집사들로 해석하고 있다.

32 Calvin, *Calvin's New Testament Commentaries: The Acts of the Apostles*, Vol. I, 87.

33 Τοῦ δὲ πλήθους τῶν πιστευσάντων ἦν καρδία καὶ ψυχὴ μία, καὶ οὐδὲ εἷς τι τῶν ὑπαρχόντων αὐτῶ ἔλεγεν ἴδιον εἶναι ἀλλ' ἦν αὐτοῖς ἅπαντα κοινά.

34 Calvin, *Calvin's New Testament Commentaries: The Acts of the Apostles*, Vol. I, 87, 128-129.

바울이 여기서 언급한, 주는 자들(μεταδιδούτας)이라는 단어는 자신들의 소유를 주는 자들이 아니라 교회의 공적 자선물 분배 책임을 맡고 있는 집사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자비를 보여주는 자들(ἐλεοῦντας)으로는 고대 교회 풍속에 따라 병자를 돌보도록 임명된 과부들과 다른 봉사자들을 뜻한다. 가난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것과 그들의 상황을 보살피는 것은 별개의 임무들이다. 전자의 임무와 관련해서는 그는 단순성을 추천해서, 기만이나 사람 차별 없이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감당할 것을 말하고 있다. 후자의 임무에 관해서는 그들이 기꺼운 마음으로 일한다는 점을 보여주기를 바라고 있다.<sup>35</sup>

칼빈은 9절도 구제와 관련시켜 해석하고 있다. 바울이 언급한 사랑이란 “모든 위선을 버리고 순수하고 진정한 마음으로부터 흘러 나오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서 언급된 악은 사람들에게 행하는 부당한 악행을, 그런가 하면 선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구제와 같은 친절을 의미한다.”<sup>36</sup> 요약하자면 칼빈은 집사의 구제 임무는 두 종류 있다고 생각했으며, 두 직분 모두 순수한 사랑의 마음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친절하게 감당되어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다.

### 2.2.3 칼빈의 그 이외의 작품

칼빈은 『자유파 논박』(*Contre la secte des Libertins*, 1545)에서 자유파들의 재산 공동 소유 주장을 강하게 비판한다. 자유파들의 재산 공동 소유 주장은 “성도의 교제”로 그럴듯하게 미화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각자가 아무것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지 않고 그가 가질 수 있는 곳에서 무엇이든 취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라고 한다.” 일부 탐욕스런 그리스도인들이 자

35 Calvin, *Calvin's Commentaries*, Vol. XIX (Grand Rapids: Baker Book, 1996), 462-463.

36 Calvin, *Calvin's Commentaries*, Vol. XIX, 464.

유파들의 이러한 주장에 대한 명분을 제공한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자들 중에 너무도 악착스럽게 탐욕을 드러내며 만족할 줄 모르는 탐욕가(gouffre) 내지는 굶주린 짐승과 같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자유파가 이런 자들의 탐욕에 대해 불평하면서 표면상 그럴 듯한 구실을 내 세우는 것이 사실이다.”<sup>37</sup> 따라서 재물을 가진 자들은 결코 그것에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칼빈에 따르면 재산을 포기하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은 아니며, 다만 그 재산을 어떻게 바르게 쓰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sup>38</sup> 예컨대,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부자 청년에게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좇으라”라고 하셨다. 이 말씀을 재산을 포기하라는 보편적인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것은 재물에 집착하는 악을 인식하지 못한 특정인에게 주신 말씀이지,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다.<sup>39</sup> 사도행전 9장의 다비다와 16장의 루디아의 경우처럼, “신자들이 그들의 재물을 서로 나누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혼동하여 섞지 않으며, 오히려 각자의 것을 자기 수중에 갖고 소유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이웃 사랑을 표현하고 구제가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한다.<sup>40</sup> 칼빈은 이런 균형을 사도행전 4장 32절 이하의 말씀을 들어 설명한다. “제자들 중 누구도 자기가 가진 것을 자기 것이라 말하지 않았고, 모두가 그들의 물질을 사도들의 발 아래 가져왔다. 심지어 밭과 물건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들을 팔아 돈으로 만들어서 가난한 자들의 궁핍을 도왔다.” 자유파들은 이 말씀을 오해한다는 것이다. 이 말씀을 공동소유적 관점에서 받

37 박건택, 『칼뱅작품선집:니고데모파.재세레파.자유파논박』 제5권, 319.

38 박건택, 『칼뱅작품선집:니고데모파.재세레파.자유파논박』 제5권, 321.

39 박건택, 『칼뱅작품선집:니고데모파.재세레파.자유파논박』 제5권, 321-322.

40 박건택, 『칼뱅작품선집:니고데모파.재세레파.자유파논박』 제5권, 324-325.

아들이기 때문이다. 칼빈에 따르면, 자유파 식(式)의 오해만 경계한다면 초대 교회의 서로 나누는 삶의 모습은 매우 좋은 본보기가 된다.<sup>41</sup> 예루살렘 교인들은 “누구도 궁핍을 당하지 않게 하는 형제애”를 보여 주었는데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귀감이 될만한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거울”이라 아니할 수 없다.<sup>42</sup>

또한 칼빈은 재산에 대한 청지기 정신을 강조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언젠가는 계산을 하겠다”는 조건으로 맡은 재물의 청지기임을 스스로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sup>43</sup> 바로 그 정신 위에서 구제가 이뤄져야 한다. 예수께서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셨을 진데,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재물을 가난한 이웃과 나누어야 한다. 궁핍한 우리의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 또한 그들의 궁핍에 동참해야 한다. 이런 삶의 태도야말로 우리가 고수해야 할 태도인 것이다.<sup>44</sup> 그렇게 될 때 비로소, 바울이 만나 비유로 표현한 것처럼,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하지 않게 될 것이다.<sup>45</sup>

지금까지의 논의된 칼빈의 “구제” 견해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구제는 이웃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어야 한다.

둘째, 참된 경건은 구제를 그 본질로 한다.

셋째, 구제는 초대교회의 필수적인 관행이었다.

넷째, 구제는 사회적 질서인 재산 소유 보존의 바탕에서 이뤄져야 한다.

41 박건택, 『칼뱅작품선집:니고데모파.재세레파.자유파논박』 제5권, 322.

42 박건택, 『칼뱅작품선집:니고데모파.재세레파.자유파논박』 제5권, 323.

43 박건택, 『칼뱅작품선집:니고데모파.재세레파.자유파논박』 제5권, 320.

44 박건택, 『칼뱅작품선집:니고데모파.재세레파.자유파논박』 제5권, 320-321.

45 박건택, 『칼뱅작품선집:니고데모파.재세레파.자유파논박』 제5권, 321.

### 3 신학적 빈민 구호 방안

#### 3.1 16세기의 집사

16세기의 문헌들에서는 “deacon”이라는 용어가 상당히 애매모호하게 나타나 있다. 기본적으로 16세기에는 “deacon”이 부사제를 의미하며 젊은 성직자를 가리키는 뜻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일부 개신교에서 “deacon”은 공무원을 뜻하기도 했다. 그러나 칼빈은 이런 식의 집사 이해를 실제에 적용하는데 반대하며 집사(deacon)에 대한 의미를 사제의 조력자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자라고 하는 개혁된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를 공식화하였다고 볼 수 있다

#### 3.2 집사직에 관한 주해

집사직에 관한 개신교적 고찰은 집사의 기능과 역할을 분명하게 기록한 사도행전 6장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사도행전 6장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한 과부에 대한 구제 사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7명을 선택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다. 칼빈은 선택된 7명을 세운 것을 집사직의 효시로 본다. 개신교도들은 디모데전서의 집사들과 가난한자들을 돌보던 사도행전에서의 일곱 집사가 근본적으로 같은 직분을 가리킨다고 여겨왔다. 칼빈은 디모데전 3:8~13에서의 언급된 집사직을 교회의 공적 직무를 수행하는 항존직으로 보며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직무는 말씀의 직무와 함께 교회의 2대 직무를 구성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초대교회에서 말씀 지식의 갱신과 더불어서 적절한 구제 또한 이루어 져야 했다.<sup>46</sup>

46 E. A. McKee, “Exegetical History of the Diaconate II: I Timothy 3:8-13,” in *John Calvin: On*

집사직(diaconate)에 관한 중요한 언급이 나타난 디모데전서 3장 8~13절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sup>47</sup> 11절의 ‘여자’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쟁점이 생긴다. 대체로 요한 크리소스톰(John Chrysostom. 347-407)을 필두로 동방 교회 지도자들은 ‘여집사’를 지칭한 것으로 본다.<sup>48</sup> 하지만 대체로 서방 교회는 11절의 ‘여자’를 2절에서의 감독의 아내와 같은 맥락에서 집사의 아내를 지칭한 것으로 본다.<sup>49</sup> 칼빈은 아마도 두 번째 해석인 서방교회의 입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13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를 ... 얻느니라.” 이 부분이 더 중요한 쟁점이 되는 데, 언급된 보상의 본질이 무엇인가가 중요하다. 중세 서방 교회에서는 계층적 구조 속에서 더 향상될 수 있는 직분이 있기라도 하는 것처럼, 충성된 집사에게 약속된 상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다.<sup>50</sup> 칼빈은 집사들도 장로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칼빈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다. “나는 집사직이 때로는 장

---

*the Diaconate and Liturgical Almsgiving* (Geneve: Librairie, 1984), 180.

47 딤후전 3:8~13

8 διακόνους ὡσαύτως σεμνοῦς μὴ διλόγους μὴ οἶνω πολλῶ προσέχοντας μὴ αἰσχροκερδεῖς

9 ἔχοντας τὸ μυστήριον τῆς πίστεως ἐν καθαρᾷ συνειδήσει

10 καὶ οὗτοι δὲ δοκιμαζέσθωσαν πρῶτον εἶτα διακονείτωσαν ἀνέγκλητοι ὄντες

11 γυναικῆς ὡσαύτως σεμνάς μὴ διαβόλους νηφαλέους πιστὰς ἐν πᾶσιν

12 διάκονοι ἔστωσαν μιᾶς γυναικὸς ἄνδρες τέκνων καλῶς προϊστάμενοι καὶ τῶν ἰδίων οἴκων

13 οἱ γὰρ καλῶς διακονήσαντες βαθμὸν ἑαυτοῖς καλὸν περιποιούνται καὶ πολλὴν παρήσιν ἐν πίστει τῇ ἐν χριστῷ Ἰησοῦ

48 Chrysostom, MPG 62:553을 참조하라. Mckee, “Exegetical History of the Diaconate II : I Timothy 3:8-13,” 161.

49 Aquinas가 대표적으로 그런 해석을 견지한다. Thomas Aquinas, *Super Epistolas Pauli Lectura*, ed. P. Raphaelis Cai. O.P. (Romae/Taurini, Marietti, 1953):115; Mckee, “Exegetical History of the Diaconate II : I Timothy 3:8-13,” 162.

50 Aquinas, 122을 보라. Mckee, “Exegetical History of the Diaconate II : I Timothy 3:8-13,” 164.

로 양성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바울의 더 단순한 설명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한다: 이 직분을 잘 감당한 이들은 큰 영예를 받을 만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비천하지 않고 매우 존귀한 직분이기 때문이다.<sup>51</sup> 칼빈의 초점은 집사들의 사역 즉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 거룩한 사역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sup>52</sup>

그래서 집사직에 관한 이해에서 로마 카톨릭 교회와 개신교 사이의 매우 중요한 견해 차이를 보인다. 카톨릭 교회는 집사를 사제의 조력자로 보는 반면에, 칼빈은 집사의 직무는 교회의 재정과 가난한 사람을 돌 보는 데 있다고 한다. 이런 맥락에서 칼빈의 다음 진술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

그러나 교황주의자들이 집사를 임명함으로 바울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먼저, 집사들로 하여금 성배를 들고 행진하게 하는데 왜 제대로 배우지 못한 자들에게 감명을 주기 위한 온갖 우스꽝스러운 전시를 위해서만 집사를 임명하는냐 하는 것이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대개는 당장 사제로 승진할 의도 말고는 지난 오백년간 한 사람도 집사로 임명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는 집사직분이 가지는 의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서, 집사로 임명받은 그 사람이 더 높은 직분으로 승진했다고 자랑하는 것은 얼마나 위선적인 것인가?<sup>53</sup>

### 3.3 집사직의 재발견

---

51 John Calvin, *Calvin's New Testament Commentaries, The Second Epistle of Paul to the Corinthians, and the Epistles to Timothy, Titus and Philemon*. trans. T. A. Smail (Grand Rapids: Eerdmans, 1980), 229; Mckee, "Exegetical History of the Diaconate II : ITimothy 3:8-13," 167

52 Mckee, "Exegetical History of the Diaconate II : ITimothy 3:8-13," 168.

53 Calvin, 1 Tim. 3:13, CO 52:287; Mckee, "Exegetical History of the Diaconate II : I Timothy 3:8-13," 169.



칼빈의 집사직 재발견이 스트라스부르그의 사역자인 마틴 부처(Martin Bucer, 1491-1551)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의 초판(1536)에서 개혁적인 집사직의 기본 이해를 제시했다고 보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1538-41년 사이에 칼빈은 스트라스부르그에서의 체류하면서 부처의 집사직 견해를 접했을 것이고, 그 집사직의 실행을 목격했을 것이다.<sup>54</sup>

칼빈은 그가 방문한 다른 여러 도시들에서도 율법의 둘째 돌판에 새겨진 “다른사람 사랑하기”가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 지도 관찰했을 것이다. 그는 “교회 안에는 가진 것을 골고루 나누게 하기 위한 질서나 혹은 구조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확신했고, “모든 지체 간에 재화의 상호 교류라는 독특한 교회의 사명을 실현하기 위해서” 집사직을 신설했던 것이다. 집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영적 연대를 보여 줄 수 있도록 경제적 재화가 교회의 모든 지체 가운데 골고루 흐르도록” 하는 사명을 가졌다. 더 나아가서, “궁핍한 자에게 행해야 할 의무와 복음 증거를”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sup>55</sup> 칼빈은 이런 형태의 집사직의 중요한 모델을 초대교회에서 찾았다. 그는 사도행전이 보여준 것처럼 초대교회에는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이들이 있었다고 확신했기에 그는 집사직의 회복을 시도했다. 따라서 칼빈의 집사직 이해는 성경의 본문 주해에 기초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시대적 공간에서 실용적 형태를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54 스트라스부르그의 개혁가 마틴 부처는 흔히 프로테스탄트 최초의 목회자로 여겨진다. 칼빈은 그로부터 받은 영향이 분명한 것은 권징(discipline) 사상이며, 그를 인하여 ‘집사직의 재발견’이 이뤄졌는지는 더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Seward Hiltner, *Preface to Pastoral Theology* (Nashville: Abingdon Press, 1958), 43.

55 André Biéler, *L'humanisme social de Calvin*, 박상원 역, 『칼빈의 사회적 휴머니즘』(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3), 64.

1541년에 칼빈이 비교적 안정된 상태에서 사역했던 스트라스부르그로  
 에 있다가 어려움이 많았던 제네바로 돌아오게 된 것은 일정한 조건 제시  
 와 수용 후에 내려진 결정이었다. 칼빈은 새로운 교회 직제를 1541년 9월  
 에 제네바 의회에 제출해서 11월에 비준된 그의 『교회 헌법』(*ordonnances  
 ecclesiastiques*)에 담아 제시했고 제네바 시 당국은 그런 칼빈의 제안을 받  
 아들여야 했다.<sup>56</sup> 칼빈 이전에는 집사직은 결코 장로직과 같은 차원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칼빈에 의해서 집사직은 이제 가난한 자를 돌보  
 는 교회의 필수적인 직분으로 다시 자리 매김된 것이다.<sup>57</sup> 칼빈은 『교회 헌  
 법』에서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직분인 집사를 목사와 교사, 장로와 함께 네  
 가지 교회의 필수적인 직분으로 제시했던 것이다.

### 3.4 여성과 집사

과부들을 직분에 임명하는 사안은 성경에 신중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칼  
 빈은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과부들과 관련된 두 번째 하위의 집사직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한다.

롬 12:8을 보면 바울이 교회의 공적인 임무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데 여  
 기에는 반드시 두 개의 분명한 계층이 있었음이 틀림없다. 만약에 우  
 리가 판단력을 잘못 발휘하지 않는다면, 첫 절에서 그는 자선금을 분  
 배하는 집사들을 임명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두 번째  
 절에서는 가난한 자와 병자들을 돌보는데 헌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디모데전서 5:9-10에서 바울이 언급한 과부들이 이 부

---

56 1541년 11월 20일에 대의회(General Council)에서 『교회 헌법』은 반대없이 통과되었다.  
 Robert M. Kingdon, *Registers of the Consistory of Geneva in the Time of Calvin*, Vol. I, 1542-1544  
 (Grand Rapids: Eerdmans, 2000), XXVIII.

57 E. A. Mckee, 『칼뱅의 목회 신학』, 이정숙 역 (서울: 두란노 아카데미, 2011), 36.

류에 속한다. 여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데 헌신하는 것 이외에 다른 공적인 일을 이행할 수 없었다.<sup>58</sup>

교회에서 남자들은 리더였고, 여자들은 그들을 보조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일에 있어서도 질서 상 여자들은 남자들에게 복종해야 했고, 남자들은 최고의 위치에 있었고 여자들은 낮은 위치에서 제한된 일들을 하도록 되어 있었다.<sup>59</sup> 하지만 일 중에는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훨씬 더 잘 할 수 있는 것도 있었다.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일도 여자들이 잘 할 수 있는 그런 류의 일일 것이다. 그래서 분명히 고대 교회의 관습은 여자들, 특히 과부들은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사역을 했고, 그들에게는 공적인 지위와 임무가 주어졌다.

교회 집행의 집사직의 기능과 가난한 자에 관한 구제는 성경적인 것에 기초되어 이해가 되어야 한다. 디모데전서 5:3-10절의 과부들과, 개인적인 사례인 로마서 16:1-2절에 나온 독신여성이 있다. 그들의 임무는 가난하고 병든 자들의 구제였다. 로마서 12:8절에 나온 제 2 부류의 집사들은, 자선금을 모금하고 집행하는 남자들보다 하위에 속한 부인들이었으나 교회의 공적임무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었다.

칼빈에 따르면, 롬 12:8 에서 바울은 교회의 공적인 임무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 그 임무에는 두 개의 분명한 계층이 있었음을 언급하고 있다. 첫 절에서 그는 자선금을 분배하는 집사들을 임명하고 있다. 그러나 두 번째 절에서는 가난한 자와 병자들을 돌보는데 헌신하는 사람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디모데전서 5:9-10에서 바울이 언급한 과부들이 두 번째 부류에 속한다. 여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데 헌신하는 것 이외에 다른 공적

58 McNeill-Battles, *Institutes*, 2:1061.

59 E. A. Mckee, “Exegetical History of the Diaconate IV: Phoebe and the Widows,” in *John Calvin: On the Diaconate and Liturgical Almsgiving* (Geneve: Librairie, 1984), 217-218.

인 일을 수행할 수는 없었다.

지금까지 논의된 칼빈의 집사직 이해를 요약한다면,

첫째, 집사직은 교회의 필수적인 직분으로 사제의 조력자 그 이상이다.

둘째, 집사직은 구제를 그 본연의 사명으로 한다.

셋째, 구제 행정과 구제 시행을 맡은 두 종류의 집사직이 있다.

넷째, 여성에게는 구제 시행과 같은 하위직 집사직이 열려 있다.

## 4 실천적 빈민 구호 방안

### 4.1 개혁의 현장 제네바

16세기의 제네바는 작은 도시국가였으나 정치, 경제, 사회, 종교적으로는 그 중요성이 결코 과소 평가될 수 없는 곳이었다. 그곳은 국제 무역 도시로서 유럽 최고의 무역 상품 집결지의 하나였다. 제네바는 전통적으로 카톨릭 교회의 절대 영향권에 있었다. 이런 제네바를 진정으로 프로테스탄트 도시로 거듭나게 한 것은 1532년 베른(Bern) 출신인 기욤 파렐(Guillaume Farel, 1489-1565)이 도착해서 비렛(Pierre Viret, 1511-71) 등과 함께 복음적인 개혁을 시작하면서부터였다. 하지만 1533년 5월의 개신교 확장에 반대하는 강력한 폭동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더라도 이 파렐의 개혁 운동은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다.<sup>60</sup> 이런 제네바에 필요한 ‘준비된 일꾼’인 칼빈은 일시적인 체류객의 신분으로 제네바의 등장하였다. 하지만 파렐의 강력한 권면과 함께 칼빈은 자신 위에 놓인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을 의식하여 그곳에 남아서 평생의 사역을 시작하게 된다.<sup>61</sup>

---

60 이 폭동으로 시의회원 한 명이 살해되었고, 파렐은 그 도시를 떠났다가 1534년에 다시 돌아와서 제네바에서의 개혁운동을 다시 이끌었다. 안은찬, 『칼빈의 목회 신학』 (서울: 기독교 문서 선교회, 2007), 60.

그러나 칼빈의 개혁 운동은 얼마 못되어 도전을 받고 그는 제네바에서 추방되었다. 1541년에 칼빈은 제네바 의회로부터 다시 와달라는 초청을 받게 된다. 칼빈은 제네바로 돌아 가길 원치 않았지만, 이 번에도 뉴사텔(Neuchatel)에 가 있었던 파렐의 강권을 받아들여서 제네바로 돌아왔다. 그때가 1541년 9월 13일이었다. 엄밀한 의미에서 귀환하겠다는 칼빈의 수락은 조건부적 수락이었다. 이제 제네바로 돌아가면 성문화된 종교 현장을 만들어 거기에 입각해서 그 도시를 거룩한 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가 만든 성문화된 종교 현장이 바로 그 유명한 교회 헌법(ordonnances ecclesiastiques)이다. 이 교회 헌법은 이후의 칼빈의 사역의 법적 기초가 되었다. 칼빈의 사회복지적 대안의 요체인 집사직의 언급도 이 교회 헌법에 등장한다. 칼빈의 사역의 특징은 모든 활동이 신학적 근거 하에 이뤄졌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그의 신학은 사역의 실제화를 위한 디딤돌이 되었다는 것이다.<sup>62</sup>

## 4.2 빈민구호 방식 개혁

16세기의 유럽에서는 인문주의자의 배경이든, 카톨릭 교회의 배경이든, 또 종교 개혁자들의 배경이든 사회 복지에 대한 강조가 자리잡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시대가 개혁의 시대였던 만큼 교회의 사회 복지와 빈민 구호 방식에서도 개혁이 이루어졌다. 그 개혁의 방향은 평신도화(laicization), 중앙 집중화(centralization) 그리고 이성화(rationalism)로 정리할 수 있다.

---

61 하지만 칼빈은 처음부터 목사로서의 사역을 시작한 것은 아니다. 파렐에게 제네바에 남더라도 교회를 맡지는 않겠다는 조건을 달았던 것이다. 칼빈은 처음에는 성경 강해자로 일하다가 이후에 설교자로 임명되었다. 그가 제네바에서 목사 회원이 된 것은 1536년 10월이라고 한다. 안은찬, 『칼빈의 목회 신학』, 63-64.

62 안은찬, 『칼빈의 목회 신학』, 76.

평신도화(laicization)란 그 시대의 빈민 구호를 “도시와 중산층과 연결되는 종교 형식”의 평신도들이 주도하였다는 것을 말한다.<sup>63</sup> 일명 세속화로 불리기도 하는 평신도화의 정황은 다음과 같이 기술될 수 있다:

당시 (자선의) 실천적 기관을 운영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대개 도시 활동이나 상업에 경험이 있는 평신도들이었다. 이렇게 해서 자선 행위를 관리하고 실제 행정을 주도하는 일은 성직자들의 손을 떠나게 되었는데, 이것이 곧 평신도화다. 빈자 구호의 평신도화는 이전부터 한동안 진행되어 온 과정이었다. 물론 교회 지도자들도 여전히 가난한 자들을 위한 사제적 기능행사를 계속했지만, 통제 권한은 이제 거의 평신도와 세속 정부의 손으로 넘어갔다.<sup>64</sup>

그런가하면 그 시대에는 자선 기금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중앙 집중화(centralization)가 이루어졌다.:

중앙집중화란 많긴, 적긴 모든 기부가 한 두 개의 ‘공동함’(common chests)으로 집중되면서 자잘한 낭비를 막는 것을 가르킨다. 중앙집중화는 행정상으로도 구제가 중복되는 것을 막고, 자격있는 사람들에 의해 기금이 관리됨으로써 기금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하는 방책이었다.<sup>65</sup>

마지막으로 그 시대의 빈민 구호가 이성화(rationalism)되었다는 것은 “가

63 특히 칼빈은 기존의 경제 운용의 틀을 근본부터 부정하는 혁명적인 시각을 갖지 않았다. 칼빈이야말로 사회복지문제를 기본적으로 “도시와 중산층과 연결되는 종교 형식”하에서 사고하였다. 유태화, “칼빈과 자본주의,” 『칼빈과 사회』, 고신대학교 편집부 편 (부산: 개혁주의 학술원, 2009), 23.

64 McKee, 『칼뱅의 목회 신학』, 108-109.

65 McKee, 『칼뱅의 목회 신학』, 108.

난한 자의 분류를 질서있게 정리하고 ‘도움을 받기에 합당한 지 여부’를 조심스레 변별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과부들과 고아들, 장애인이나 병자와 같은 사람들은 구체적인 필요, 거주지 등의 정보와 함께 등록되어 적절한 보조를 받게 되었다.”<sup>66</sup>

### 4.3 빈민 구호 방안들

#### 4.3.1 구빈원(Hospitals)

16세기 제네바의 사회 복지에서 구빈원(Hospitals)이 차지하는 위치는 대단히 중요했다. 구빈원(Hospitals)은 병원으로 번역될 수 있지만, 그 시대의 구빈원은 현대적인 의미의 병원을 넘어서는 것이었다. 그 기능이 치료 등의 의료활동 뿐만 아니라 구제도 검했기 때문에 구빈원이라 칭해진 것이다.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필요를 가진 사람들을 돌보는 다기능적 사회 복지 기관이었다.<sup>67</sup> 구빈원은 병자나 노인, 고아들을 포함해서 자비로 숙식을 해결할 수 없는 방문자들에게 숙소로 제공되기도 했다.

그런데 16세기의 구빈원은 제네바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또 칼빈에 의해서 설립된 것도 아니었다. 제네바에서 13-15세기 사이에 세워진 7개의 빈민들을 돌보는 구빈원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최고(最古)의 구빈원은 노틀담(Notre Dane)의 로네(Rhone) 구빈원이었다. 이들 구빈원들은 대체로 빈민 구제와 그들의 영혼의 문제에 관심이 있었던 부유한 평신도들과 그들의 유산으로 세워졌다. 그러나 16세기가 접어들면서 제네바시는 이런 구빈원들을 좀더 효율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었다. 이미 그곳에서는 중앙 집중

66 McKee, 『칼뱅의 목회 신학』, 109.

67 이상규, “칼빈과 구호활동,” 『칼빈의 목회 신학』, 고신대학교 편집부 편 (부산: 개혁주의 학술원, 2009), 187.

화, 평신도화 그리고 이성화로 칭해지는 복지행정의 개혁이 일고 있었다.

결국 제네바 시는 1535년 11월에 기존의 구빈원들의 기능을 흡수할 수 있는 새로운 종합 구빈원(General Hospital)을 설립하게 된 것이다. 종합 구빈원은 제네바 구(舊)시가지 중심에 있었던 세인트 클레어(Saint Claire) 수녀원 건물에 세워졌다. 기존의 모든 구빈원들은 다 해체되고 그 재산과 토지는 종합 구빈원으로 이전됐다. 제네바의 개신교 청년 단체의 압박으로 제네바의 카톨릭 성직자와 신자들이 떠날 때도 그 수녀원 수녀들은 그대로 그곳에 머물르기를 희망했다. 하지만 카톨릭의 신앙 양식을 보존하면서 그 수녀원에 남는 것이 허용되지 않자 결국은 프랑스 안시(Annecy)에 있는 수녀원으로 옮기게 되었다.<sup>68</sup> 종합 구빈원은 제네바 시의 소유가 되었다.

이 종합 구빈원은 사회 안전망과 교회 개혁을 동시에 표방하는 제네바의 개혁주의자들의 이상을 구현해 주는 것이었다. 그럼으로 때때로 개혁가들을 압박해 오는 거센 도전들을 방어해 주는 역할을 해 주었다. 당시에 제네바의 개신교회는 종교 개혁의 실시로 인해서 많은 재산을 상실하여 충분한 재정이 없었으나 제네바 시가 부족한 재정의 상당부분을 충당하여 주었다. 큰 시설을 유지하고 있었던 종합 구빈원의 운영 자본은 기본적으로 시 재정으로 충당했다. 물론 제네바와 인근 마을의 교회도 종합 구빈원을 재정적으로 지원하였으며<sup>69</sup> 시민들의 기부금 또한 중요한 운영 기금이었다.

68 Jeannine Olson, “칼빈이 제네바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본 것에 관한 연구,” 『칼빈과 사회』, 고신대학교편집부 편, 윤천석 역 (부산: 개혁주의학술원, 2009), 161.

69 안인섭 교수는 이 사실을 교회와 국가와 관계성의 맥락에서 잘 설명하고 있다. 그는 설명하기를, 정교 분리는 종교개혁자들의 교회와 국가 관계의 일반적인 원칙이었다. 그러나 가난한 자의 구제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교회와 국가의 원활한 협력속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이것이 당시 종교개혁이 진행되면서 교회의 많은 토지와 재산을 상실하면서 교회의 기금의 부족을 겪는 상황에서는 제네바시가 사회복지 개혁의 후원자가 되게 하는 이와 같은 접근이 아주 주효했던 것이다. 칼빈에게 있어서, 국가는 “하나님의 대리자”의 위치에서 가난한 자나 환자와 같은 사회 복지 대상자들을 보호함으로써 하나님의 선과 공의를 사회속에서 극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접근은 제네바의



칼빈은 이 종합 구빈원 운영을 감독하거나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 종합 구빈원의 운영은 전적으로 평신도들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도록 해서 전임 구제자(hospitalier)를 임용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구빈원을 창립하지도 감독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16세기 제네바에서의 구빈원 운영 방식은 칼빈으로 인해서 향상되었으며 정화되었다는 점에서 그는 간접적인 개입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상업 지도자들이 설계한 구빈원의 변화를 정당화시키고 영속화시켰던 것이다.<sup>70</sup>

#### 4.3.2 프랑스 구호기금

프랑스 구호기금(Bourse francaise)이야말로 구빈원과 더불어 16세기 제네바의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중요한 재원이었다. 제네바에 종교개혁이 진행되면서 수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새로운 피난민들이 유입되었기 때문에, 제네바 시는 피난민 문제가 난제중의 난제였다.<sup>71</sup> 그 결과 이 도시에서는 빈부의 격차가 심각해 졌고 밀려오는 피난민들에 대해 적절한 해결책을 마련할 수 없었다. 결국 시당국은 1545년 6월 15일 허가 받지 않는 외국인들은 모두 제네바를 떠날 것을 명령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다행히 부유했던 다비드 뷔장통(David Busanton of the Hainault)이 임종 시 기부한 거금으로 피난민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하면서 이 명령은 시행되지 않았다.<sup>72</sup>

이런 혼란 속에서 생겨난 구호기금이 바로 프랑스 구호기금이다. 이 프

---

사회 복지를 놀라울 정도로 정비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 안인섭, “칼빈의 국가론,” 『John Calvin』, 한국칼빈학회 (서울:두란노, 2009), 196-197.

70 이상규, “칼빈과 구호활동,” 189.

71 1550년에 제네바 시 인구는 대략 13000명 가량이었는데, 1560년에 그 도시의 인구는 대략 21000이었다. 이러한 급작스러운 인구 증가는 10년 사이에 이탈리아와 프랑스로부터 종교적인 이유로 이주한 피난민들 때문이었다.

72 이상규, “칼빈과 구호활동,” 194.

랑스 구호기금은 원래는 세 카테고리들, 즉 종교인, 프랑스인, 피난민을 충족한 자들을 위한 것이었다: 즉 프랑스의 개신교도로서 핍박을 피해 피난 온 자들을 대상으로 했다. 프랑스 구호기금은 설립 취지가 원래는 개신교적 성격이 컸다. 1536년 5월 21일에 제네바 시민 총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던 것은 이제는 제네바에서는 미사가 금해진다는 것이다. 그 결과 수많은 카톨릭 교회의 성직자와 신자들이 제네바를 떠나야 했는가 하면 유럽에서 종교적으로 박해받던 개신교들에게는 제네바가 어느 덧 그들의 정착지가 되었다. 특히 프랑스 개신교도에게 제네바는 그들의 수도처럼 인식되고 있었다.

혹자들은 프랑스 구호기금은 프랑스 개신교 목회자들이 프랑스 개신교회의 부흥을 목적으로 만들어 졌다고 생각했다. 프랑스 구호기금의 이런 종교적인 성격은 이 기금의 원제(原題)에서도 확인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이 도시로 피신한 가난한 프랑스 외국인을 위한 기금’ 이라고 했던 것이다.<sup>73</sup> 그런가하면 이 기금은 프랑스인들을 위한 기금으로 출발했다. 그래서 기금의 명칭을 프랑스 구호기금이라 했지 않는가? 또한 이 기금의 목적은 가난한 피난민들을 구호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얼마 후에는 이 프랑스 구호기금이 구호 대상이 된다고 판단되는 이들에게 국적을 불문하고 주어졌다.<sup>74</sup> 또한 이 기금의 종교적인 성격이 절대적으로 적용된 것 같지도 않다.

---

73 프랑스 구호기금의 첫 관리 집사였던 장 뷰데(Jean Bude)의 유언장에서 이렇게 언급되었다. 하지만 그의 동생인 프랑소와 뷰데(Francois Bude)의 유언장에서는 이 기금을 “복음의 개혁을 위하여 이 도시로 피신한 가난한 프랑스 외국인들을 위한 기금”으로 표현했다. 어느 쪽이든 이 기금이 종교적인 성격을 전제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Olson, “칼빈이 제네바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본 것에 관한 연구,” 165.

74 프랑스 구호기금과 같은 성격으로 후에는 이탈리아인 피난민을 위한 이탈리아 구호기금, 독일인 피난민을 위한 독일 구호기금 등이 생겼다. 각 민족들을 위한 이런 구호기금들이 생기면서는 민족에 기초하여 어느 구호기금에 신청할 것인가를 규정하는 법규도 마련되었다. Olson, “칼빈이 제네바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본 것에 관한 연구,” 168.

프랑스 구호기금의 생성의 첫 단계에는 부유했던 다비드 뷔장통(David Busanton of the Hainault)이 피난민 문제 해결위해 기부금을 내 놓은 것이 종자(種子)돈이 되었다. 이 후에 많은 부유한 사람들이 이 기부금 출원 대열에 동참하였다. 물론 이런 기부자 대열에는 과거 피난민이었던 부자들도 여러 있었다. 그런 면에서 프랑스 구호기금은 구빈원과는 달리 본질적으로 사적기금의 성격을 띠고 있었던 것이다.<sup>75</sup>

프랑스 구호기금은 단순한 구제의 성격을 넘어서서 자립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생계지원과 숙소와 직업교육 등을 제공함으로써 자립하도록 지원 격려했던 것이다. 물론 이 기금의 수혜자들에게는 기금의 원제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개혁”이라는 표현이 암시하듯이 개신교 신앙에 적합한 생활방식을 요구했다. 애초에 이 기금의 운영은 목사에 의해서 이뤄졌으나 1550년 즈음에 이르러서는 기금을 모집하고 분배하는 일들이 평신도 집사들에 의해서 운영되었다.

이 프랑스 구호기금이 칼빈의 상당한 관심과 지원 하에서 조성되고 운영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칼빈은 처음부터 이 기금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였다. 이 기금의 수혜 대상자들은 그 태반이 신앙을 고수하기 위해 고향을 떠난 피난민들이었기 때문이었다. 칼빈 자신이 프랑스 피난민이었으며, 스트라스부르크에서의 3년 동안 피난민 교회 사역을 했던 점을 감안해 볼 때, 종교적 피난민들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또한 프랑스 구호기금의 모금에 있어서도 초기에 제네바 목사들이 관여했다는 사실로부터도 칼빈 관여를 짐작케 한다.

또한 칼빈은 프랑스 구호 기금의 기부자 중의 한 사람이었다. 칼빈 자신은 기본적으로 간소한 식사를 했으며, 때로는 궁핍에 가까울 정도로 검소

---

75 J. E. Olson, *Calvin and Social Welfare* (Selinsgrove: Susquehanna University Press, 1989): 17-21.

한 생활 양식을 유지했다. 그리스도께서도 간소한 식사를 하시면서 검소하셨다고 그 자신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sup>76</sup> 칼빈은 그렇게 절약하여 모은 돈으로 그 자신이 프랑스 구호기금의 기부자가 되었다.

지금까지의 칼빈의 실천적 구호방안에 관한 의견을 정리한다면,

첫째, 제네바의 빈민 구호 방식은 중앙집중화, 평신도화, 합리화의 양상을 띠며 개혁되었다.

둘째, 이러한 개혁이 잘 반영된 곳이 바로 제네바의 구빈원이다.

셋째, 구빈원과 집사직은 긴밀하게 연관되어 운영되어졌다.

넷째, 칼빈은 프랑스 구호기금에도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여 지도했다.

## 5 글을 마무리하며

16세기 칼빈의 제네바는 엄청난 변화의 소용돌이의 중심에서 있었다. 그의 내적 신앙의 갱신은 사회적 문제를 완전히 새롭게 인식하게 했다. 그는 개인적 종교를 세상을 향해 열게 했고, 신학적 사상들을 사회적 문제와 나란히 놓고 보게 한 것은 그 시대의 종교 개혁의 성격, 특히 기독교적 사회복지 사상의 전환점을 형성한 것이라 평가된다. 칼빈에게 있어서는 결코 종교와 세속 사회가 두 영역으로 이분법화되지 않았다.

16세기의 빈민 구호의 경향은 중앙화, 세속화(평신도화) 그리고 합리화였다. 이런 시대적인 조류와 칼빈의 빈민 구호의 접근은 상당히 근접한다고 보여진다. 칼빈 자신은 검소하게 살면서 개인의 자격으로 프랑스 구호기금에 기부, 동참하였으며, 집사들은 교회의 본질적 직분자의 자격으로 종합 구빈원의 사역을 책임지게 했다. 집사직을 여성들과의 관련 속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칼빈의 고려는 흥미롭다. 그 시대의 문화적인 폐쇄성을

---

76 John Calvin, *Calvin's New Testament Commentaries, Matthew, Mark, and Luke*, vol.II, trans. T. H. L Parker (Grand Rapids: Eerdmans, 1972), 89-90.

고려한다면 실로 대단히 열린 사고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면서도 칼빈이 집사직을 여성에게 개방한 부분을 가난한 자와 병자를 돌보는 공적 사역에만 국한 시킨 데서 또한 그의 실제적(實際的) 사고를 엿볼 수 있다.

칼빈의 빈민 구호 사상의 근거에는 사랑에 기초한 부의 재분배 개념이 놓여 있다. 그는 재산을 하나님의 섭리를 구현하는 도구로 보았다, 따라서 부자는 재산을 자신만을 위해 사용할 것이 아니라 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가난한 자를 위해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완성해 가야 한다. 바울이 언급한 이스라엘 백성의 만나의 재분배의 경우에서 보듯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하지 않으리라.”(고후 8:15) 그럴 때 비로소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가 구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큰 구도하에서 칼빈은 구제를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이라는 사실과 이 구제 사역의 주역이 교회의 집사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이런 칼빈의 집사직의 규정은 “집사직의 재발견”이라고 언급할 수 있을 정도로 오해된 집사직을 초대교회의 원래의 위치로 복원시킨 것이라 하겠다. 그에게 있어서 집사직은 사도행전 6장에 언급된 7명의 집사가 원모델이 됨은 물론이다. 하지만 이 집사 직분은 디모데전서 3: 8-13에서 볼 수 있듯이 항존직 직분으로 간주해야 한다.

교회의 항존직인 집사를 국가의 소유인 구빈원의 운영과 봉사에 배치한 것은 교회 빈민 구호 사역의 참여는 국가(제네바 시)와의 협력의 구도속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칼빈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국가(제네바 시)야말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빈민 구호의 주체가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런 식의 접근은 16세기의 제네바의 교회가 종교개혁을 진행되면서 재정이 어려워진 상황에서는 아주 효과적인 접근이었다고 보아진다. 칼빈은 교회와 시정부의 협력 하에서 제네바 시의 빈민 구호의 측면에서도 지상에서 가장 이상적인 그리스도의 학교를 구현하고자 했던 것이다.

## 참고문헌

- 고신대학교 편집부 편. 『칼빈과 사회』. 부산: 개혁주의 학술원, 2009.
- 고신대학교 편집부 편. 『칼빈과 사회』. 부산: 개혁주의 학술원, 2009.
- 김주한. “칼빈과 가난의 문제: 칼빈의 기독교 사회 복지 정책.” 『한국 교회사학회지』 제 24집. 2009: 123-156.
- 박건택. 『칼뱅 작품 선집 Vol V: 니고데모파, 재세례파』. 서울: 총신대 출판부, 1998.
- 안은찬. 『칼빈의 목회 신학』. 서울: 기독교 문서 선교회, 2007.
- 안인섭. “칼빈의 국가론.” 『John Calvin』. 한국칼빈학회 서울: 두란노, 2009.
- 황성철. “칼빈 당시 제네바 교회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신학지남』 통권266호 (2001년 봄): 141-173.
- Calvin, John. *Calvin's Commentaris* Vol. I. Grand Rapids : Baker Book House, 1989.
- \_\_\_\_\_. *Calvin's Commentaris* Vol. III. Grand Rapids : Baker Book House, 1998.
- \_\_\_\_\_. *Calvin's Commentaris* Vol. XIX. Grand Rapids : Baker Book House, 1998.
- \_\_\_\_\_. *Calvin's New Testament Commentaries, Matthew, Mark, and Luke* Vol. II, Translated by T. H. L. Parker. Grand Rapids: Eerdmans, 1989.
- \_\_\_\_\_. *Calvin's New Testament Commentaries, The Second Epistle of Paul to the Corinthians, and the Epistles to Timothy, Titus and Philemon*. Translated by T. A. Smail. Grand Rapids: Eerdmans, 1980.
- \_\_\_\_\_. *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 totam fere pietatis summam et quidquid est in doctrina salutis cognitu necessarium complectens, omnibus pietatis studiosis lectu dignissimum opus ac recens editum, 1536. Ioannis Calvini Opera selecta, edidit Petrus Barth, Volume I: Scripta Calvini ab anno 1533 usque ad annum 1541. Continens (Munchen: Chr. Kaiser Verlag. 1926), 21-280.
- \_\_\_\_\_.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Edited by John T. McNeill. Translated by Ford Lewis Battles. Philadelphia: Westminster Press, 1960.
- Gamble, C. *Articles on Calvin and Calvinism* Vol. III. New York: Garland Publishing, 1992.
- McKee, E. A. “Exegetical History of the Diaconate II: I Timothy 3:8-13.” In *John Calvin: On the Diaconate and Liturgical Almsgiving*. Geneve: Librairie, 1984.
- \_\_\_\_\_. “Exegetical History of the Diaconate IV: Phoebe and the Widows,” In *John Calvin: On the Diaconate and Liturgical Almsgiving*. Geneve: Librairie, 1984.
- \_\_\_\_\_. *John Calvin: On the Diaconate and Liturgical Almsgiving*. Geneve: Librairie, 1984.

\_\_\_\_\_. 이정숙 역. 『칼뱅의 목회 신학』. 서울: 두란노 아카데미, 2011.

Olson, J. E. *Calvin and Social Welfare*. Selinsgrove: Susquehanna University Press, 1989.

\_\_\_\_\_. “칼빈이 제네바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본 것에 관한 연구.” 『칼빈과 사회』. 고신대학교 편집부 편. 윤천석 역. 부산: 개혁주의학술원, 2009.

16세기 칼빈의 제네바는 변화의 소용돌이속에 있었다. 칼빈은 자신의 신앙의 갱신을 통해서 사회 문제를 완전히 새롭게 인식하게 됐다. 그가 신학적 문제를 사회적인 이슈들과 나란히 놓고 보게 한 것은 기독교 사회복지 사상의 전환점을 마련한 것이라 평가할 수 있다. 그에게는 종교와 세속 사회가 결코 두 영역으로 남지 않았던 것이다. 칼빈의 사회 복지 사상의 근저에는 이웃 사랑의 구체적 표출로써의 구제의 실천이 있고, 그 구제는 곧 참된 경건의 본질이라는 사상이 놓여 있다

이런 큰 구도하에서 칼빈은 자선과 구제를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이라는 사실과 이 구제 사역의 주역이 교회의 집사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이런 칼빈의 집사직의 규정은 “집사직의 재발견”이라고 언급할 수 있을 정도로 오해된 집사직을 초대교회의 원래의 위치로 복원시킨 것이라 하겠다.. 더 나아가서 칼빈이 16세기 제네바의 대표적인 구제 기관인 구빈원과 구제 사역을 그 본질로 하는 집사직을 결합하여 운영한 점, 또한 피난민을 위한 효율적인 프랑스 기금 운영 등은 구제의 탁월한 실천적 방안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칼빈의 자선과 구제사역을 살펴보면 현대 교회가 강조하기 시작한 복지 목회의 신학적 근간을 정리해 본다.

주제어: 칼빈, 사회 복지, 집사, 구빈원, 프랑스 구호기금



## Calvin's Understanding of Almsgiving and His Practical Plan of Social Welfare

Park, Young-Sil  
Chongshin University

Calvin made significant contributions to the dramatic reformations that characterized 16th century Geneva. Through his reforming work, Calvin perceived social problems in a new perspective that became critical in shaping the Christian social welfare system. Rather than separating religion from secular society, he married the two, understanding social issues to parallel theological issues. Calvin's perspective of social welfare emphasized redistribution of wealth on the foundation of love. Calvin regarded charity as an essential church ministry. He ventured into a "rediscovery of the role of deacons," restoring deaconship to be as described in the Bible. Calvin particularly focused his study on the appointment of the seven deacons in Acts 6 charged with caring for the widows and the distribution of the fellowships' resources. He also pushed for conserving deaconship as a permanent position as described by 1 Timothy 3:8-13. Given that he showed considerable openness to deaconesses, this meant that women could have a permanent position in the church. Although this was quite liberal of him, he was still practical and realistic by limiting the role of deaconesses to the ministry of the poor and ill. This article compares the theological foundation of social welfare ministry with modern churches' recent emphasis on social welfare ministry.

*Key Words:* Calvin, Geneva, Social Welfare, Deacon, Hospitals.